

내가 제작한 책이 어린이에게 꿈이 된다면

불교계 구호단체 더프라이스 '조용한 책' 캠페인 눈길

한국불교는 현재 국제구호의 전성시대를 맞고 있다. 2000년대 들어 국제구호단체들이 잇달아 창립됐고, 활동 범위도 동남, 중앙아시아에서 아프리카까지 넓혀가고 있다. 하지만 사업 영역은 대부분 기금 모연과 학교 건립 등 지원사업에 국한된 것이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온 가족이 참여해 동화책을 만들어 빈곤국가 어린이들에게 선물하는 이색 캠페인을 불교계 국제구호단체에서 처음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불교계 국제개발구호단체 더프라이스는 지난 10월부터 후원과 봉사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 '조용한 책'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종이도 아닌 펄트로 제작이 돼 소리가 나지 않는 책을 의미하는 '조용한 책'은 글씨도 없이 책을 보는 사람이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더프라이스에서 제작 기획한 '조용한 책'은 'Dream a little Dream'이라는 주제로 우주인, 요리사, 연예인, 운동선수 등 8개의 직업에 대한 자신의 이야기를 인형 놀이로 풀어내는 형식으로 꾸며졌다.

또한 국내 후원자가 키트를 구매함으로써 후원참여를 할 수 있으며 온 가족이 직접 만들고 메시지를 작성해 현지 어린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

더프라이스의 빈곤국가 어린이를 위한 책 제작 사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



국제개발구호단체 더프라이스가 진행하고 있는 '조용한 책' 캠페인 샘플(사진 왼쪽)과 지난해에 제작한 색칠공부 동화책 <공쥐 팔쥐>를 보여주고 있는 미얀마 어린이들(사진 오른쪽). 단순한 재질 투자가 아닌 교육교재 개발은 한국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케이스다.



펠트 소재 동화책 직접 만들어 '꿈' 주제... 창의력 교육에 효과
교육 통한 아이들 자존감 향상
미얀마·동티모르 어린이에 전달

난해에는 한국 대표 전래 동화 '공쥐팔쥐'와 두 친구의 아름다운 우정을 담은 '오성과 한음'을 미얀마 어린이를 위한 책으로 묶어 냈다.

한국어와 미얀마어를 혼용한 이 책은 책 중간 중간마다 자신이 직접 색칠할 수 있게 해 아이들에게 예술적 감수성을 키울 수 있게 한 것이 장점이다. 책 제작과 삽화는 전문 일러스트레이터 문신기 씨와 디스커버리 미디어 출판사의 유명종 사장이 재능기

부로 이뤄졌다. 국제구호단체들이 영어 동화책 구입해 전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더프라이스'처럼 실질적 교육 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직접 책을 기획하고 이를 통해 봉사 활동을 유도하는 것은 매우 드문 사례이다. 신라호텔, 삼성SDI, 삼성물산, 국민은행, 인천공항공사 등 기업들의 단체 봉사활동이 줄을 잇고 있는 이유도 단순히 재원 투자가 아닌 참여를 통한 지원에 취지를 공감하기 때문이다.

양해운 더프라이스 행복나눔팀장은 "지난해 제작한 '한국전래동화' 키트는 색칠공부가 포함돼 아이들의 미술교육에 활용됐다. 현지 아이들에게도 호응도 매우 좋았다"면서 "이번 '조용한 책'의 경우에는 아이들이 직접 이야기를 만들 수 있도록 채

우려 발달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 교육적 효과가 높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에도 '조용한 책' 캠페인은 시리즈로 진행될 것"이라며 "차기 주제는 '상상'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용한 책' 캠페인은 1키트 당 3만원(봉사시간 4시간)에 판매하고 있으며, 수익금 전액은 미얀마와 동티모르 교육사업에 사용된다. 완성된 동화책은 선별하여 현지 어린이들에게 더프라이스 직원이 직접 전달하고 현지 사진은 홈페이지(thepromise.or.kr)에 실린다.

또한 더프라이스는 조용한 책 캠페인 외 동티모르 여성 및 여학생을 위한 파우치 만들기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으며, 후원참여 봉사프로그램으로써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신종일 기자

고령자취업 활성화 위한 취업포럼

서울시어르신취업훈련센터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최희우) 부설 서울시어르신취업훈련센터는 11월 21일 오후 2시 30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고령자취업 활성화 실천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고령자취업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관련 전문가와 실천가 한자리에 모여 현 고령자취업 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향후 고령자취업활성화를 위한 노인복지실천기관의 역할을 조망하기 위해 마련됐다. 각계 노인복지전문가의 주제 강연을 통해 노년기 일의 의미와 노인복지실천방향을 확인하고, 이어서 다른 고령자취업기관이 진행하고 있는 실천 사례에 대한 발표 및 토의가 열릴 예정이다.

특히 이번 포럼을 주최하는 서울시어르신취업훈련센터는 올해 급변하는 고령자취업시장과 다양한 경력을 갖춘 고령구직자들의 욕구를 기반으로 진행되는 여러 사업들을 소개할 예정이다. 먼저 올해 신설된 '내일행복학교'는 그

동안 다양한 경력을 갖고 있는 구직자들이 단순노무직종으로 내몰리는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해 고령자가 갖고 있는 경력과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창의직업아카데미', '사회공헌아카데미', '직업전문아카데미', '창업아카데미'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도슨트부터 영상제작과정, 강사, 민생상담가, 문화해설사, 도슨트, 바리스타, 설문조사원, 사서도우미 양성까지 고령자가 만족하며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신규 직종개발에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서울노인복지센터는 "이번 포럼은 이러한 서울시어르신취업훈련센터도 포함한 다양한 기관의 사례를 공유하며 현 상황을 진단하고, 다가올 고령자 취업시장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노인복지실천기관이 각자의 역할을 서로 조망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02)739-9501 이나은 기자

진각복지재단, 월곡복지관 위탁법인 선정

2016년까지 생활밀착형 서비스 제공

진각복지재단(대표이사 회장 정사)이 성북구립 월곡종합사회복지관 위탁법인으로 선정됐다. 월곡종합사회복지관은 성북구 오페산로16길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 2,015㎡,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하루 평균 700여명이 이용하고 있다. 진각복지재단은 임대아파트와 근접한 월곡종합사회복지관의 특성을 살린 생

활밀착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임대아파트 세대관리사업 '우리 함께해요' 특화사업을 기반으로 지역사회보호사업, 교육문화사업, 주민조직화사업, 가족관계증진사업, 가족기능보완사업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진각복지재단은 전국 40여개의 국내외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을 직영·수탁하고 있는 전국법인이다. 이나은 기자

이주여성과 아동위한 교실 "날개를 펼치다"

꿈을이루는사람들 4월부터 운영...학생들에 인기

사단법인 꿈을이루는사람들(대표 진오)이 다문화 아동들을 위해 운영하는 프로그램 '날개 달아주기'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날개 달아주기'는 2013년 여성가족부 지역 다문화 프로그램에 선정된 프로그램으로, 지난 4월부터 매월 2회 진행되고 있다.



꿈을이루는사람들은 지난 4월부터 '날개 달아주기' 사업을 다문화가정 아동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꿈을이루는사람들은 "소외돼 있던 다문화 아동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그들의 정체성을 확립시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이주여성의 동반아동과 일반아동이 함께 참여하는 아로마, 클레이, 한지공예, 예절 교육, 요리치료 등의 기회를 제공해 사회성과 자존감을 높이고, 부모와 아동이 공감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 것에 큰 의미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중국 통역원 송 모(42)씨는 "다문화 가정의 엄마와 아이가 함께 프로그램에 참

여하는 기회가 없었으나 이번에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꿈을이루는사람들은 "향후 지역사회의 보호와 각종 교육을 필요로 하는 다문화 가정의 아동과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다문화 시대에 문화소통과 공유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한국사회에 올바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 것"이라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싱겁게 먹고 건강 지키자!

중로노인종합복지관, '저염식 체험의 날' 개최

고혈압 등 만성질환의 주원인으로 알려진 짜게 먹는 습관을 개선하는 캠페인이 열렸다. 중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은 11월 14일 복지관 이용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소금섭취 줄이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중로보건소의 협조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나트륨 농도가 다른 5개의 콩나물국 시료를 맛보고, 참가자 자신이 느끼는 짠맛의 강도와 선호도를 측정하는 '미각검사'를 실시해 어르신들의 큰 호응이 있었다. 어르신들은 상담 후 스스로 저염식 실천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 참여한 김순자 어르신은 "영양사가 현재 내가 짜게 먹지 않는 편이라고 했다"고 자랑스러워하며, "건강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싱겁게 먹는 것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검사를 담당했던 중로보건소 영양사는



중로노인종합복지관은 중로보건소의 협조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미각검사'를 실시했다.

"중로노인종합복지관처럼 어르신들의 이용이 많은 복지관들이 '싱겁게 먹기 운동'에 앞장서 준다면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밖에 중로노인종합복지관은 '싱겁게 먹기' 운동의 일환으로 식탁 위 염분통 없애기, 당일메뉴 염도 공개, 1:1 영양상담, 영양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오고 있다. 이나은 기자

본동종합복지관, '나눔인식캠페인' 실시

본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종성)은 지역 나눔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나눔인식캠페인'을 11월 4일 노랑지역 앞 광장에서 동작구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나눔인식캠페인'은 본동종합사회복지관이 2013년 나눔이웃 활성화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동작구 지역 복지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틈새계층 지원 및 나눔공동체 활성화 프로젝트 '나눔대장의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의 일환이다. 이번 행사는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나눔 실천가들이 유동인구가 많은 인근 거점 지역에서 사업에 대한 지역 내 관심 유도 및 나눔 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지 배포, 나눔트리·나눔열매 맺기, 나눔서포터즈 서명활동을 하는 자리였다.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나눔실천가들이 나눔서포터즈 서명활동을 하고 있다.

본동종합사회복지관은 "이번 활동을 통해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 및 참여를 도모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나은 기자

양 지 국 악 사

사찰전통 대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tak.com

■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ukukak.com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투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1-248-6298